

# 석유화학 16곳, 사업재편안 제출 정부, 금융·세제·R&D 지원예고

산업부,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  
여수·대산·울산 3대 산단 참여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 제시  
내년부터 구조개편 본격 추진

석화산업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석유화학 기업이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 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 케미칼·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

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 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화산업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 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23일 출범한다. 화학 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 기업, 중소·중견 화학 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 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다.

주력 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정부는 R&D 추진 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개인사업자 대출 줄었지만 연체율 ‘사상 최고’

데이터처, ‘개인 사업자 부채’ 발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1억7892만원  
은행·비은행 등 모든 부문서 상승세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째 줄었으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1억7922만원) 대비 0.2%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반면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올랐다. 연체율은 2년째 급등해 1%에 육박한 상태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 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층에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평균 대출 3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42~1.92%)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사업지원·임대(0.89~1.31%), 농림어업(0.92~1.29%), 예술·스포츠·여가(0.61~1.12%), 숙박·음식(0.69~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축소로 64억 과징금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적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과 비교해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여기엔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서울권 의대 수시 미등록 5년 내 최고

종로학원, 4개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  
모집정원 축소 속 서울권 쏠림 심화

의대 모집정원 축소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서울권 의대는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미등록 인원이 늘었고, 지방권 의대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모집정원 축소가 지방권에 집중된 반면 서울권은 인원 변동이 없었던 데다, 전국적인 의대 지원자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서울권 의대 쏠림과 중복합격이 이동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0명 ▲연세대 28명(44.4%) ▲기톨릭대 23명(41.1%) ▲고려대 39명(58.2%)이었다. 서울대는 5년 연속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인원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세대와 기톨릭대는 모두 최근 5년 중 미등록 인원이 가장 많았다. 연세대는 2022학년도 22명에서 2026학년도 28명으로 증가했고, 기톨릭대 역시 2025학년도 21명에서 2026학년도 23명으로 늘었다.

서울권에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은 ▲2022학년도 88명(43.3%) ▲

/이현진 기자 ihj@

## “공통원서·통합회원 가입 미리 준비하세요”

대교협, 2026 정시 원서접수 29~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활용해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완료해 둘 것을 당부했다.

22일 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전문대학은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 여부와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를 활용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시모집 당시 작성한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 공통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험생은 정시 원서접수 전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합회원 가입은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중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

한 곳을 통해 가능하며,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공통원서는 통합회원 ID로 로그인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입력해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는 여러 대학 지원 시 반복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공통원서를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내보내기’ 기능을 눌러야 다른 대행사에서도 수정 내용이 반영된다.

/이현진 기자

## 농협, 학계·농민단체 중심 ‘혁신위’ 1월 발족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전반 점검

내년 1월 학계·농민단체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농협은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혁신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 또 지역농축 협조회장·임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

농협은 지난 11월 범농협 혁신 TF(전담반)를 발족하고 18개에 달하는 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울러 정부 개혁과제 뒷받침을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선출 투명화 ▲조합원 직선제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 앞 통지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